

챗GPT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 챗GPT 생성 텍스트와 대학생 글쓰기 포트폴리오 사례
비교분석

이은주*

-차 례-

1. 문제제기: 챗GPT 등장과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우려
2. 챗GPT 생성 텍스트와 대학생 글쓰기 비교
 - 2.1. 비판적 사고 비교: 문제의식 비교
 - 2.2. 논리적 사고 비교: 개요 비교
 - 2.3. 스토리텔링의 독창성 비교: 도입부 비교
 - 2.4. 창의적·포괄적 사유 가능성: 제목 비교
3. 결론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학습자의 논리적 글쓰기 포트폴리오 결과물과 같은 과정으로 챗GPT가 생성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포트폴리오 결과물과 챗GPT 생성 텍스트의 차이, 각각의 강점,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 정도 등 챗GPT가 글쓰기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문제제기 비교에서 학습자는 융복합적, 비판적 사고를 하며 방사형으로 사고가 확장됨을 볼 수 있었고, 챗GPT는 핵심어 범주 안에서 텍스트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요 비교에서 학습자는 논리적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챗GPT는 장과 장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입부 비교에서 학습자는 현실성, 실제감이 느껴지는 스토리텔링을 특징으로 한다면, 챗GPT는 설명문 형태의 텍스트를 생성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제목 비교에서 학습자의 창의성, 포괄적 사유능력을 볼 수 있었다면 챗GPT는 지정된 영역 안에서 병렬적인 작업을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챗GPT는 자료검색, 자료범위 한정,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융복합적, 방사형, 입체적 사고로 맥락을 교직하는 글쓰기의 특성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일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 chatGPT, 대학 글쓰기 교육, 생성 텍스트, 스토리텔링, 실제감, 현실성, 비판적 사고, 창의성, 포괄적 사유

1. 문제제기: 챗GPT 등장과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우려

2022년 챗GPT의 등장은 대학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교양교육과정 안으로 진입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지만 C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글쓰기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목들의 필수 학점을 늘린다는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행보는 교양교육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기술 변화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 글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챗GPT가 생성한 텍스트 내용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고 대학 글쓰기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글쓰기 교육에 대한 회의와 우려 섞인 시선이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 즉 “실제적(authentic) 쓰기와 피리된 가상의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바보 같은(mutt) 일’¹⁾로 여겨질 수 있음을 우려하거나, 전통적 글쓰기 교과목을 두고 낡고 오래되었으므로 현재와 같은 기술환경 시대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것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학습자의 논리적 글쓰기 포트폴리오 결과물과 같은 과정으로 챗GPT가 생성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포트폴리오 결과물과 챗GPT 생성 텍스트의 차이²⁾, 각각의 강점,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 정도 등 학습자가 실제로 쓰게 되는 글에 챗GPT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이 결과가, 현재 챗GPT의 등장이 만들어내는 우려, 부작용, 환상을 글쓰기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제어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는 데 활용되

1) 장성민,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작문연구』 56집, 한국작문학회, 2023, 8면 재인용.
 2) 챗GPT가 사람과 기계를 구분하는 튜링테스트를 통과했고,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한다(강동훈,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82집, 2023, 488면).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쓴 글과 기계가 생성한 텍스트의 구분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를 기대한다.

분석대상인 학습자 포트폴리오 결과물은 챗GPT가 활성화되기 전인 2022학년도 1학기 학생 포트폴리오 중 우수과제물 한 편을 선정했다. 비교 대상인 챗GPT 생성 텍스트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과제물의 주제에 맞춰 학습자가 완성본을 만들어가는 과정대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챗GPT에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얻은 결과물³⁾이다. 프롬프트 내용은 각 절에서 분석내용과 함께 다루었다.

2. 챗GPT 생성 텍스트와 대학생 글쓰기 비교

2.1. 비판적 사고 비교: 문제의식 비교

C대학교 공통교양 교과목인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는 과정 중심형 글쓰기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수업 내용은, 한 학기 동안 한 편의 논리적 글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재를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학습자가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주제정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텍스트와 콘텐츠를 여러 관점에서 읽고, 비판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운영하며, 학습자는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개인 수행활동 및 소규모 팀활동으로 학습 내용을 실제화하는 연습을 한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화제 탐색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설정된 주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의 첫 결과물(<표1-1>)이

3) chatGPT3.5를 이용하여 생성함.

(<https://chat.openai.com/> 2023.9.23.-2023.10.15.). 프롬프트(질문) 내용은 사례 분석과정에서 함께 제시한다. 챗GPT는 한국어 텍스트 생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논문에서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 챗GPT 생성 텍스트는 ①한국어로 질문 작성 ②DeepL, papago에서 영어로 변환 ③②를 챗GPT 프롬프트에 입력 ④그 답으로 영어 텍스트 생성 ⑤DeepL, papago에서 ④를 다시 한국어로 변환했다. ⑤번 텍스트가 비교 대상이다. 학습자가 챗GPT를 활용하여 글쓰기 수업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제출한다고 했을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일 것으로 추론했다. ①에서 ⑤까지 챗GPT 한글 텍스트 생성 과정은 아래 논문을 참고했다.

장성민, 앞의 글, 10면.

다. 비교 대상인 챗GPT 생성텍스트(<표1-2>)는, 학습자 글감의 ‘축법 소년’을 핵심어로 하면서⁴⁾ ‘화제, 문제의식, 문제제기, 새로운 관점, 논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어구를 사용한 명령어로 얻어진 결과물이다.

<표1-1> 학습자: 글감과 화제나열	<표1-2> 챗GPT: 생성텍스트
<p>글감(소재): ‘축법소년’으로 알려진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형법 제9조: 형사책임연령 규정)</p> <p>화제나열: ①Netflix 화제의 드라마 <소년심판> ②축법소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악용하는 중학생 사례- 대구 시내 식당 ③대선주자들까지 등관한 축법소년 논란 ④성년과 청소년의 권력 불균형- 규정하는 성인과 자신들을 규정할 수 없는 청소년 ⑤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의 의의로 본 현행 소년법 ⑥청소년기 신경계의 발달(미엘린화)로 살펴본 현행 형사책임 연령의 의의 ⑦축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또는 청소년 보호처분 종류 다양화에 대한 고려</p>	<p>프롬프트 내용 -소년법(청소년 범죄자) 형사 처벌과 관련된 에세이 작성에 적절한 화제를 나열해줘. -소년법(소년법, 청소년 범죄자)을 소재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해줘. -소년법(소년법,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하세요. -소년법(소년법, 청소년 범죄자)을 소재로 토론할 수 있는 논제를 나열해줘.</p> <p>생성 텍스트 ①소년사법제도의 변천과정/ 성인법원으로의 이송 ②청소년 양형 차이/ 가석방 없는 소년 생활/ 감금에 대한 대안/ 소년 사형제도/ 재입소 및 재범(률) ③청소년 범죄자 재활에서 가족의 역할/ 소년재활에서 교육의 역할/ 지역사회 기반 대안/ 예방 프로그램/ 사회로의 재통합 ④국제 청소년 사법 접근법 ⑤너발달이 청소년 양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범죄자와 정신건강/ 청소년 범죄의 사회경제적 요인/ 청소년 비행 동향 ⑥인종 격차</p>

4) 축법 소년, 소년법 등의 어휘는 각주 3)의 과정에서 청소년 범죄자, 소년법 등으로 번역되었다.

<표1-1>과 <표1-2>에 나열된 화제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현실성, 실제감의 차이이다. 두 사례 모두 동일한 글감으로 제한 없이 화제를 나열하게 되는데, <표1-1>의 ①②③은 현재, 여기라는 시공간성의 드러남만으로도 글을 쓰는 화자의 개성은 물론 주제의 실제성을 담보한다. ①②③은 모두 현실 문제와의 상관성을 담은 것으로, 다양한 매체 경험, 정치권의 반응으로 시야를 넓히는 학습자의 사고 확장성을 엿볼 수 있다. 현실성으로 확보되는 생동감은, 학습자의 입장을 일정 부분 전달하는, ‘악용하는(②)’, ‘대선주자들까지(③)’, ‘규정할 수 없는(④)’, ‘다양화에 대한 고려(⑦)’ 등의 어휘를 통해 비판적 사고까지도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2>는 프롬프트 내용을 달리하여 생성된 결과물을⁵⁾ 종합한 후 구분 정리한 것으로, 텍스트가 생성된 시간과 공간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즉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챗GPT가 사전학습(pre-trained, machine learning)하고 저장하는 온라인상의 자료(database)가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프롬프트의 핵심어가 소년‘법’일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환할 수 있는 내용, 즉 ‘법의 변천사, 범죄 원인, 양형, 재활, 사회 복귀(재통합), 범죄 예방’ 등의 범주 안에서 텍스트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1-1>의 방사형 화제 나열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화제를 찾고자 할 경우 프롬프트 내용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기존의 검색 방식과 다르지 않다. 검색어를 인간이 고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적은 올바르게 정리된 문장으로 주제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글을 쓴다는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로 시야를 넓혀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 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⁶⁾. 그 과

5) <표1-2>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프롬프트 내용을 4가지로 다르게 하여도 생성되는 텍스트 내용은 순서와 개수에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6) 가톨릭관동대학교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 『논리적사고와 글쓰기』, 경진출판사,

정에서 비판적, 논리적 사고는 물론 융복합적 사유 능력이 훈련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나’의 생각이 정립된 지성인, 판단하고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입력된 자료에 근거하여 답을 하던 기존 인공지능 방식에서 진화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특징⁷⁾으로 한다. 하지만 그 ‘새로움’이 학습자(<표1-1>)가 보여줄 수 있는 ‘융복합적’, ‘비판적’ 사고 과정의 결과물과는 다르게, 동일 영역 안에서 알려진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생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챗GPT는 선행연구(자료) 검토, 자료검색, 연구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논리적 사고 비교: 개요 비교

글은 다양한 요소로 만들어지는 복합물이다⁸⁾. 자료를 읽고, 요약하고, 해석하여 다른 관점과 견주어 보고 토론하며 사유하는 과정은 그래서 글쓰기 교과목의 중요한 운영방식이 된다. 특히 논리적인 글은 좋은 글의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논리력을 훈련하는 저 과정의 반복과 체득이⁹⁾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사한 화제, 동일한 주제의 글도 새로운 구성에 의해 특별한 관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글 전체를 상상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훈련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화제를 나열하면서 주제를 확정한 학습자가 만든 개요와 같은 주제로 챗GPT가 생성한 개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2-1> 학습자 개요	<표2-2> 챗GPT: 생성텍스트
주제문	프롬프트 내용

2016, 4-5면.

7) 강동훈,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82집, 2023, 478면.

8) 정희모 외, 『대학 글쓰기』, 삼인, 2008, 15면.

9)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생각의 길, 2015, 77면.

<p>: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 조정 논란이 있지만 현행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p> <p>1. 도입부 - Netflix 신작 ‘소년심판’- 촉법소년 제도 글의 목적 분석 대상</p> <p>2. 국내외 소년법 검토 및 법 개정 여론의 편향성 1) 형법 제9조(형사책임연령)의 기본이념 2) 유엔 아동 권리협약의 의의 및 관련 외국입법례 3) 법 개정 여론이 주로 사실이 아닌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감정에 의존하는 현상 4) 소년범죄 발생 건수 감소</p> <p>3. 소년법 개정의 절차상 문제 - 세대 간 권력 불균형 문제 1) 청소년 의견 수렴과정 제한되었음-‘고령자중심민주주의(Rentnerdemokratie)’ 2) 청소년의 입법 과정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음 - ‘자기결정논거’</p> <p>4. 소년법 개정의 내용상 문제 - 청소년 발달의 특수성 1) 청소년 발달의 사회과학 및 과학적 특수성을 경시함-피아제 <발달이론>, 신경계 미엘린화(化) 2) 형사 책임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함 -‘재사회화’를 의미하는 ‘엄벌주의’</p>	<p>: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제의 에세이 목차를 플랜 텍스트로 보여줘.</p> <p>생성 텍스트</p> <p>I. 서론 A. 배경 소개 B. 주제 소개 C. 논의의 목적 및 구조</p> <p>II. 현행법의 장점과 한계 A. 현행법의 기본 원칙 B. 장점 1. 미성년자 권리보호 2. 재교정 기회 제공 C. 한계 1. 공정성 문제 2. 범죄 예방 측면의 논란</p> <p>III. 엄격한 처벌의 위험 A. 미성년자의 발달과 범죄 B. 사회 재통합의 어려움 C. 재범률 증가 가능성</p> <p>IV. 다양한 범죄와 맥락에 따른 처벌 고려 A. 범죄 유형별 다양성 B. 범죄 상황과 맥락 고려의 필요 C. 공정한 처벌의 원칙</p> <p>V. 결론 A. 주요 주장 재정리 B. 최종 결론 및 입장 강조</p> <p>VI. 논의의 전망 A. 미래에 대한 고려 사항 B. 정책 제언</p>
---	---

<p>4. 소년법 개정에 대한 제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 중, 특정범죄에 과도한 감수성 발현을 경계해야 함 2) 법 개정 절차에서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보장 3) 법 개정 내용에서 청소년 발달 과정의 특수성 고려하여야 함 4) 소년법 기본이념 존중하여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 중심의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p>5. 마무리</p>	
--	--

<표2-1> 학습자 개요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란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소년법에 대한 여론이 특정 범죄자에게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음을, 소년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하여 드러낸다. 이어, 정치권이 여기에 가세하여 소년법 개정을 상정하였는데 이 또한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정 보다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다.

동일한 주제로 생성된 <표2-2>에서는 ‘현행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현행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II장에서 현행법의 장점과 한계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어 문제의식이 부각되지 않지만, 주제문을 고려하면 II-C에서 밝힌 한계를 반박하는 내용이 III장, IV장에서 구성되면 ‘현행법 유지’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III장에서는 II-A에서 이미 설명한 현행법의 기본 원칙을 재차 설명하고 있고, IV장은 한계로 지적한 ‘공정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내용이 편입되는 구성으로는 현실적 논란 속에서 현행법 유지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체적으로 <표2-2>는 논문 목차 형식을 잘 모방 학습한 후 그 형식에 맞게 생성된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논리를 갖추어야 하는 글에서 주

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가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고 있는지를¹⁰⁾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 흐름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놓은 <표2-1>과 비교했을 때 <표2-2>는 장과장이 독립적, 평면적으로 나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스토리텔링의 독창성 비교: 도입부 비교

개요가 만들어진 후, 도입부 쓰기는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직접 쓴 후 업로드하면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¹¹⁾. 이미 만들어진 자신의 개요를 보면서 쓰기가 이루어지므로 학습자 모두는 이 시간에 어렵지 않게 도입부를 완성한다. <표3-1>은 <표2-1>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영리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3-2>는 학생 사례에 맞춰 유사한 분량이 되도록 300자 분량으로 제한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했다.

<표3-1> 학습자 도입부	<표3-2> 챗GPT: 생성텍스트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는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대사의 일부이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와 교화 가능성을 믿는 판사 사이의 갈등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두 줄기이다. 그러나 소년범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기성세대의 성찰을 요구하는 드라마의 기획의도는 소년범에 대한 자극적 보도에 길들여진 대중의 편견 앞에	프롬프트 내용 :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제의 에세이 도입부를 300자 내외로 작성해줘. (tone: critical, academic) ¹²⁾ 생성 텍스트 청소년 비행 문제는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독특하고 미묘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청소년, 과실, 재활의 미묘한 교차점을 가장 잘 헤쳐나가는

10) 유시민, 위의 책, 75면.

11) 분석대상인 학습자 사례는 2022년 1학기 사례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던 때의 것이다. 온라인 시기(2020년 1학기- 2022년 1학기)는 지정된 날짜까지 T-LMS(사이버 강의실)에 결과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제, 개요, 도입부, 완성본 순서로 시간 차를 두어 업로드하는 것이므로 오프라인 수업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 학습자는 자신의 문제의식 설정단계부터 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할 수 있다.

<p>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해당 게시판에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대한 엄벌만이 청소년 범죄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연일 게재되고 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이번 20대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드라마 속 소년범이 “촉법소년이니까 감옥 안 간다, 신난다.”라고 말하는 악마적 설정과 현실의 괴리를 성찰하지 않은 채, 대중의 법감정만을 근거로 소년사법제도 자체의 취지가 몰각당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이 생겼다. 이에 본 논고는 먼저 공식 통계를 통해 형사미성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오도된 여론에 의한 이번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할 때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연령만을 낮추는 손쉬운 형사정책은 엄벌주의로의 후퇴에 불과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소년범의 진정한 재사회화를 돕는 교육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p>	<p>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쟁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u>책임의 필요성과 재활의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현행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u>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현행 법률 체계는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와 청소년의 무분별한 행동을 둘러싼 복잡성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일부에서는 처벌보다 재활을 강조하는 관대한 입장을 주장하지만, 이 글에서는 <u>현재의 처벌 수준이 책임감을 심어주고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합니다.</u> 이 글은 이 논쟁의 다각적인 측면을 탐구하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현행 법적 접근 방식에 내재된 미묘한 균형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은 현행 처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청소년의 범죄 행위로 인한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법 시스템을 육성하는 데 있어 ③<u>책임과 재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u></p>
---	---

<표3-1>이 영리하게 <표2-1>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 것은 화제나열에서 보여주었던 아이디어들을 도입부의 필수 요소로 맥락화하는 데

12) 학생 사례에 맞춰 유사한 분량이 되도록 한 문단 분량으로 제한하였다. tone 설정도 critical, academic 으로 따로 설정하여 텍스트를 생성하여 보았으나, ‘에세이 도입부 작성’이라는 질문만으로 텍스트가 생성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tone: critical로 설정했을 때 문제가 있었음을 본문에서 설명했다.

성공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소년범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근래의 여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론은 촉법소년 범죄의 특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소년범을 악마화하는 보도와 이야기에 의해 과도하게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자체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소년사법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는 글의 목적에 도달하고 있다. <표2-1>에서 관심 환기용으로만 쓰일 것 같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대사의 상징성과 제작의도의 어그러짐에 대한 설명은 한국에서 소년범에 대한 여론, 그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현실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문제제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또한 그 맥락 덕분에 학습자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에서 문제를 찾고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글로 만들어가는 흐름에 논리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표3-2>는 동일한 주제문으로 생성된 도입부이지만, <표3-2> ②는 한국 현실(여론)과 다른 맥락을 만들고 있다. 즉 한국 여론은 관대함 보다 처벌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 ②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며 현재의 처벌 수준이 소년범들의 책임감을 묻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표3-1>은 소년범들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야 함’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처벌을 강화하지 말고 ‘현재의 처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표3-2>는 재화에 초점을 맞춘 ‘관대함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처벌 수준 유지’를 이야기하고¹³⁾ 있다. 주제문이 같아도 문제의식과 글의 의도가 전혀 다른 도입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표3-2> ①②③은 <표2-2>에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한 ‘책임에서의 공정성 문제’, ‘범죄 예방(억제)’ 부분을 뒤집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글쓰기의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검토할 때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표3-2>에서 프롬프트 내용에 ‘tone: critical’을 설정했을 때, “현재의 처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법의 이면에 숨

13) <표3-2>의 내용이 미국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 부분 역시 챗GPT를 활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될 것이다.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여기에서는 더 논의하지 않는다.

겨진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합니다”와 같은 문장을 생성하여 주제 자체를 비판한 텍스트로 완성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p><표3-3> 챗GPT: 생성텍스트 (tone: critical)</p>
<p>미성년 범죄자, 특히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처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법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p>

논리적인 글도 경로는 다르지만 정서와 감정을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공감을 얻어야¹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고 수용과 공유의 지평을 넓힐¹⁵⁾ 수 있다. 현실에 근거하여 공유할 수 있는 사실과 정보들로 문제 의식을 보여주고 글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었던 <표3-1>과 시공간의 특성을 삭제한 <표3-2>의 차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가에서 현격하게 벌어진다. 스토리가 없는 <표3-2>는 ‘글을 왜 쓰는가’, ‘글을 왜 읽는가’ 보다 앞선 ‘글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려놓고 있다.

2.4. 창의적·포괄적 사유 가능성: 제목 비교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도입부를 구성했던 학습자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글의 제목이다. 글 전체의 내용, 주제를 포괄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어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제목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며,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¹⁶⁾을 뜻한다. <표4-1>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14) 유시민, 앞의 책, 77-79면.

15) 김영희 외, 『현대사회와 비판적 글쓰기』, 박이정, 2013, 17-19면.

16) 대학교육에서 ‘자신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참고했다. 참고문헌에서 글의 제목과 연결한 것은 아니다.

<p><표4-1> 학습자 제목</p>	<p>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p>
<p><표4-2> 챗GPT: 생성텍스트</p> <p>프롬프트 내용 : ‘청소년 범죄자 처벌은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에세이에 적합한 제목을 창의적인 한 어구로 작성해줘.</p>	<p>청소년 사법: 나침반을 꾸준히 유지하기</p> <p>regenera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히: 청소년 사법법 준수 - 청소년 사법 코드 지키기: 연민과 결과의 균형 맞추기 - 내일을 보호합니다: 청소년 범죄자 법의 온전한 유지 - 의사봉을 지키다: 흔들리지 않는 청소년 범죄자 법

<표4-1>의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소년법을 대하는 한국의 여론과 그 여론에 편승한 정치권에 문제제기를 하며 사회적으로 보다 관용적 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글의 흐름에 아주 적합한 제목이다. ‘소년은 울지 않는다’¹⁷⁾는 영화 제목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까지 넘나들고 있는 학습자의 상상력은 이 시대 교육적 화두인 융복합적 사고 훈련을 위해서도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표4-1>과 최대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표4-2> 프롬프트 내용에 제목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명령어를 넣었다.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이 ‘청소년 사법: 나침반을 꾸준히 유지하기’이다. regenerate를 반복하면서 텍스트 생성을 계속했으나 화제나열 때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생성 작업이 범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복 횟수가 많다고(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성 텍스트의 창의성이 높아지거나 포괄적 사유 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하라 마사히로, 『하버드의 생각수업』, 김정환 옮김, 엔트리, 2014, 4-25면.
17) ‘소년은 울지 않는다(Boys don't cry)’는 1999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로 힐러리 스웱크가 열연하여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같은 제목의 한국영화도 2008년 개봉되었다.

3. 결론

이 글의 목적은 인공지능 생성 텍스트와 인간의 글쓰기 결과물을 놓고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챗GPT 3.5 생성 텍스트의 부족한 부분, 오류의 정도를 보이는 것에 있지도 않다. 이미 교육 현장으로 들어온 챗GPT가 학습자의 실제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우려, 부작용, 환상 등을 글쓰기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제어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자 했다.

완성형에 가까운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는 챗GPT 생성 텍스트는 완성도가 높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글과 비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제설정, 구성력에서 챗GPT 3.5의 생성 텍스트는 현실성, 실제감을 살리기 어려웠다. 그것은 나아가 실제 문장을 썬아 올린 글(도입부)에서 개성 없는 설명문 형태로 드러났다. 학습자 스토리텔링의 생동감과 유기성은 논리력, 포괄적, 창의적 사고력을 더 돋보이게 하면서 논리적인 글도 재미 있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아가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 요소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챗GPT는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 선행연구 검토나 자료 검색, 자료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할 때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된 점들도 기술력의 발전으로 보완될 것이다. 하지만 글을 쓰는 시공간적 현실 감각을 반영하여 인간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교직하는 스토리텔링 능력, 현재, 여기서 만든 맥락에서 창조되는 글힘의 원천은 늘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이다.

생성형 AI 기술발전 시대에 국어교육, 글쓰기 교육의 대응으로 질문 생성 능력, 메타적 읽기 능력, 비판적 읽기 능력¹⁸⁾을 재차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학습자가 쓰고 있는 글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18) 장성민, 앞의 글, 17-24면.

‘자기만의 글’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자기만의 질문으로, 자기 의도에 맞게, 적합성을 따지면서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 인간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¹⁹⁾에서 비롯된다. 챗GPT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의 이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결부된다. 학습자가 생각하는 과정, 성장과 변화, 자신의 이야기 만들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글쓰기 포트폴리오 지도, 평가의 중요성을²⁰⁾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습자 사례가 우수과제물인 것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학습자가 입력하게 될 프롬프트 내용의 수준과 챗GPT 생성 텍스트가 비례할 것이기에 연구의 비교 대상과 연구과정,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 강동훈, 앞의 글, 487면.

20) 노대원, 홍미선, 「chatGPT 글쓰기 표절 대응과 교육적 활용 전략」, 『국어교육연구』82집, 국어교육학회, 2023, 77면.

[Abstract]

The Future of College Writing Education in the ChatGPT Era

A Comparative Analysis of ChatGPT-Generated Texts and College Student Writing Portfolio Cases

Lee, Eunju(Catholickwandong University)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of texts generated by ChatGPT in the same process as learners' logical writing portfolio products created in a university writing course was conducted. This study sought to empirically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learners' portfolio products and ChatGPT-generated texts, their respective strengths, and the extent to which ChatGPT can be utilized in writing education.

In the question posing comparison, we can see that the learners are thinking radially, using convergent and critical thinking, while ChatGPT generates text within keyword categories. In the outline comparison, the learner was focused on creating a logical flow, while ChatGPT was flatly listing chapters and sections. In the introduction comparison, we can see that the learner characterized the storytelling as realistic and authentic, while ChatGPT generated a descriptive text. In the last title comparison, if the learner's creativity and comprehensive thinking were characterized by the learner, ChatGPT confirmed that the learner was repeating parallel tasks within a specified

area.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ChatGPT is effective when utilized in the research, scoping, and idea generation stages. We have seen that the characteristic of writing that teaches context with convergent, radial, and three-dimensional thinking may be a uniquely human ability.

Key words : chatGPT, college writing instruction, generative text, storytelling, authenticity, realism,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prehensive thinking

[참고문헌]

■ 단행본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논리적사고와 글쓰기』, 경진출판사, 2016, 4-5면.
김영희 외, 『현대사회와 비판적 글쓰기』, 박이정, 2013, 17-19면.
유광수 외, 『비판적 읽기와 소통의 글쓰기』, 박이정, 2013.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생각의길, 2015, 75-79면.
정희모 외, 『대학 글쓰기』, 삼인, 15면.
후쿠하라 마사히로, 『하버드의 생각수업』, 김정환 옮김, 엔트리, 2014, 4-25면.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동훈, 「챗지피디(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82집, 국어문학회, 2023, 478면, 487면, 488면.
김태원,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시대, 미래 모습과 대응방안」, 『Future HorizonPlus』55, 미래연구 포커스, 2023.
노대원, 홍미선, 「chatGPT 글쓰기 표절 대응과 교육적 활용 전략」, 『국어교육연구』82집, 국어교육학회, 2023, 77면.
윤옥한, 「Chat GPT 등장과 교양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3(5), 한국콘텐츠학회, 2023.
장성민,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작문연구』56집, 2023, 8면, 10면, 17-24면.
<https://chat.openai.com/> 검색일 2023년 9월 23일-2023년 10월 15일.